



Market Index / 3일

코스피지수 ▲ 2343.31 +43.51	코스닥지수 ▲ 818.46 +15.51	유가(WTI, 달러) ▲ 36.81 +1.02	환율(원)	1USD 1154.55 100¥ 1104.20	팔매 1114.85 1066.22	살매 1349.38 177.99	팔매 1296.74 161.05
---------------------------	--------------------------	------------------------------	-------	------------------------------	-----------------------	----------------------	----------------------

# 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점 제한 논란

### 시장 상인회 “농협 하나로마트 배제해야” 농업인회 “마트 거래 업체·농업인 역차별”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가맹점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 시장 상인회 등은 농협 하나로마트를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업인 단체에서는 농업인 역차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20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1500억원, 2022년 2000억원 규모의 제주 지역화폐를 카드·모바일·지류형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제주 지역화폐 발행으로 재래시장과 소매업 등이 활기를 되찾게 되면서 제주산 농산물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시장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농협 하나로마트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지역화폐의 당초 목적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연구원이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2018-2022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제주의 지역내총생산은 약 14조 421억원으로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중 공공행정, 국방 등 분야 제외 시 농림어업 분야가 1조6022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농림어업분야가 제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심축임을 보여주는 수치로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소비와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제주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연합회 관계자는 “제주지역 내 일반 유통업체의 농축산물 매출비중이 20% 수준인 반면, 제주시농협과 하귀농협의 경우 전체 매출의 55%가 농축산물이 차지하고 있어 제주산 농산물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화폐를 전통시장과 함께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농업인을 역차별 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사회 갈등과 대립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현 상생구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당초 목적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익 역외유출이 발생하는 대형마트와 유통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농수축산업 분야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도 농협 하나로마트를 ‘탐나는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배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가맹점 기준은 ‘업종 구분’이다. 쉽게 말해 안 되는 업종과 업체를 정하는 것인데 주로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SSM 등), 이에 준하는 계열사(대기업 프랜차이즈 등)를 기본으로 사행성 업체, 유흥주점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탐나는전’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가맹점에 포함시키고 제주 시내 하나로마트는 가맹점에 미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3일 제주시 용담레포츠클럽에서 열린 ‘세계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을 받은 관광진흥 유공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관광협회 제공

## 제주도관광협회 ‘세계관광의 날’ 기념식

### 유공자 표창·방역 캠페인 전개 부동석 “패러다임 전환 필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는 3일 제주시 용담 레포츠클럽에서 도내 관광종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관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과거 수백여명의 도내 관광인들이 모여 실시됐던 한마당 축제 형식과는 달리, 코로나19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제주형 특별 방역 행정조치를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주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진흥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청정

제주 관광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공항탄 등에서 관광객 대상 마스크 착용 홍보와 함께 관광지 환경정화 봉사활동도 전개했다.

부동석 회장은 “제주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자 생생 산업인 관광산업의 피해가 표현하기조차 힘든 절박하고 참담한 상황이지만, 지금의 역경을 딛고 내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니즈에 맞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국내 관광시장에서의 단체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고, 영세 관광사업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및 행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쌀쌀해진 날씨 속 김매기 3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김매기 작업을 하고 있다. 김희만기자

## 여객 수 회복에도 항공사 ‘보릿고개’ 직면

###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제주항공 수송 실적 1위에도 기금 신청 등 자금 확보 총력

여름 휴가철과 추석 항공 연휴 등으로 인해 국내 여객 수요가 증가하며 국내선 여객 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고 비수기로 분류되는 4분기에 직면한 항공업계는 생존을 위한 버티기에 돌입했다.

3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10월 제주공항의 국내선 여객 수는 217만887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2% 감소했으나, 전월보다는 48.3% 증가했다.

올해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 수는 1월 235만316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타지면서 2월에는 127만829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2% 감소했다. 3월과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55.3%, 56.2%나 감소하며 바닥을 찍은 이후, 여름 휴가철을 맞은 7월과 8월에는 전년보다 15.2%, 12.4% 감소하며 회복

세를 보았다. 9월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인해 국내선 여객 수 146만887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5%나 감소했으나, 지난달에는 217만8879명으로 10%대 감소로 회복했다.

지난달 항공사별 국내선 여객 수 송 실적은 제주항공이 99만6844명을 기록하며 국내 8개 항공사 중 가장 많았으며, 티웨이항공(95만5846명), 진에어(93만5336명), 대한항공(87만733명), 아시아나항공(82만2127명), 에어부산(71만3320명), 에어서울(29만671명), 플라잉윈(2만346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국내선 수요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항공사의 주 수입원인 국제선은 여전히 운항 재개 시점이 불투명하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도 지난달 지원 기간이 만료되면서 항공업계는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등 생존을 위한 버티기에 돌입했다.

제주항공과 대한항공의 경우 내년 초까지의 운영비 확보를 위한 기간 산업안전기금을 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6~7%에 이르는 높은 금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제주교육청 금고지기에 농협 ‘단독 응모’

### 2차례 단독... 수의계약 유력

연간 1조원이 넘는 제주도교육청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지기’가 NH농협으로 가닥이 잡혔다.

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 13일과 26일 두 차례 이뤄진 ‘제주도교육청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에서 농협이 단독으로 응모했다. 2차 공고까지 단독 응모일 경우 도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개최돼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교육청 금고에 선정되면 내년부 터 2023년까지 총 3년 동안 교육비 특별회계 자금관리와 교육기관 수납·지급 등 교육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주 금고 지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됐기 때문에

조만간 수의계약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번 공고에서 선정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항목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역투자자 평가 결과’가 추가됐다. 또 금고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원 또는 위원 배치가 금융기관에 재직하거나 재직할 경력이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친척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2014-2017년, 2018-2020년 도교육청 금고는 농협에서 단독으로 선정, 선정된 바 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조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핵심 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흡수를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리핀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UM **코코리** 검색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 21세기 최첨단 비료 → 히토류가 들어있는 “이노페스” 탄생

부리발달

↑

↓

생산성 증대

중미개선

광합성 촉진

**이노페스**

당도 향상

신진대사 촉진

내병성 강화

**특징**

- ☆가스피해가 없다
- ☆시비가 간편하며 시간과 인건비 절약

☆염류중화로 뿌리생육 발달

☆히토류 첨가로 작물의 기작 조절

이노페스 성분		효 과	
원 료 명	히 토 류	염류중화 · 토양개량 · 천연항균 작용	
	식이유황(MSM)	천연항균 작용	
	부 식 산	유기를 대체 · 토양개량	
	벤토나이트	토양개량	
	고삼 · 백합추출물	토양해충기피	
	아미노산	천연질소질 공급	
	미량요소(Mg, B, Mo, Cu, Fe, Mn, Zn)	필수 미량요소 공급	

기비(밀거름) 1,000평/모

사용 방법		작 목		사 용 량	
작 목	사 용 량	작 목	사 용 량	작 목	사 용 량
키 위	20-25	노지작물	10-12	키 위	10-12
만감류		하우스 감귤	15-20	만감류	

\* 다른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